

1월 13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월 13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어닝시즌 두렵다’ 뉴욕 나흘째 하락 [다우: 8,473.97pt (-1.46%)]</p>	<p>주요 지수는 장중 내내 낙폭을 키워 2% 안팎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음. 지난 주말 고용 충격으로 경기후퇴(recession)가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이날 알코아를 필두로 시작되는 4분기 어닝시즌의 개막을 앞두고 실적에 대한 불안감마저 높아졌음. 경기와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수요 위축 전망으로 이어지면서 유가가 8% 가까이 폭락하자 에너지주가 약세를 나타내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음. 증권 부문 매각을 발표한 씨티그룹도 급락하며 금융주 약세를 이끌었음.</p>
<p>유가 8% 폭락 [WTI: \$37.59 (-\$3.24)]</p>	<p>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2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3.24달러(7.9%) 폭락한 37.59달러로 마감했음. 이는 지난해 12월24일 이후 최저가 수준임.</p>
<p>◇‘첫 실적발표’ 알코아 ‘하락’-포드 ‘상승’</p>	<p>미국 최대 알루미늄업체 알코아(AA)는 6.9% 떨어졌다. 시간외 거래에서도 1%대의 하락률을 기록중임. 알코아는 이날 장 마감 후 6년만에 처음으로 분기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음.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자동차 ‘빅3’ 가운데 유일하게 구제금융을 지원받지 않은 2위 업체 포드가 구제금융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음. 올해 자동차 판매가 포드의 추정치보다 1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포드도 정부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임.</p>
<p>오바마 "TARP 잔여분 승인 요청할 것"</p>	<p>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차기 행정부가 미국 의회에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잔여분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로렌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내정자는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TARP 잔여분의 집행허가를 요청할 것"이라며 "미국 국민들은 정부가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경제의 잠재적 재앙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행할 자원을 갖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p>
<p>英 정부, 50만명 실업자 구제책 추진</p>	<p>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영국 정부가 50만명 실업자 구제 대책을 발표. 고든 브라운 총리는 12일 실업자 50만명에게 일자리나 직업 훈련의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고 BBC가 보도.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5억파운드를 투입해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최고 2천500만파운드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p>

제목	주요 내용
유럽 증시 나홀째 하락.. `경기+ 실적 우려`	12일(현지시간) 유럽 주요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기업실적에 대한 우려로 나홀째 하락세로 마침. 특히 이날 알코아를 시작으로 뉴욕 주식시장의 어닝시즌이 개막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이 투자심리를 짓누름. 유가 하락 여파로 정유주가 약세를 나타내며 지수 하락을 주도.
日미쓰비시重, 2011년 '아리랑3호' 쏘아올린다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에서 개발하고 있는 관측위성 '아리랑3호'를 2011년에 쏘아 올릴 전망. 마이니치 신문은 미쓰비시중공업이 KARI로부터 '아리랑3호' 발사 업무를 수주했다고 12일 전함.
中 은감위 "악성 채무 증가 감수해야"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을 확대하면서 발생하는 악성 채무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행감독위원회(CBRC)의 류밍캉 주석은 "악성 채무가 지난 5년간 감소세를 나타낸 데 이어 앞으로 악성 채무 축소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힘.
2차 배수진 친 한화그룹, 의도는?	한화 고위 관계자는 "대우조선 가치를 현재 4조 정도로 보고 있으며 한화측이 생각하고 있는 매각대상 자산목록과 함께 대우조선 인수가격을 낮출 수 있는 채무기법 등을 산업은행에 제시할 계획임. 이를 산업은행이 수용하지 않거나 인수금융 해결의 실마리를 주지 않으면 결국 딜이 깨질 수 밖에 없음을 시사. 일각에서는 이행보증금 3000억원을 되찾을 명분을 쌓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이미 인수포기 결론을 내렸다는 것.
유진그룹, "유진투자증권 매각협상 결렬"	유진기업은 12일 공시를 통해 "계열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보유지분 매각과 관련해 2008년 12월 26일 르네상스 PEF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매각조건에 대한 입장차이로 결렬됐다고 밝힘.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